

JBNU 지역발전연구원 개원 1년 전북의 미래 열다

지역발전 포럼 열고

맞춤형 정책 논의

전북대학교 JBNU 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 성과와 지역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JBNU 지역발전연구원은 1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기획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익산시의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방안 기초 연구와 남원시의 기관 이전 유류 부지 및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 통합 돌봄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완주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기본 계획 수립 방안은 지역 경제성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안으로 평가받았다.

권덕철 원장은 연구원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노대우 한국지역고용연구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JBNU 지역발전연구원은 1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기획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현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송기정 캠프종합기술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교육 및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발전연구원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연구와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이 지역 경

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안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유희대 완주군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하는 장을 통해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쿵카페' 오픈 특별 이벤트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양오봉·이하 생협)이 대학 구성원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쿵카페'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생협은 이날 이사장인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쿵카페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오픈식과 함께 생협은 1~4일 나흘간 '반값커피'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아메리카노(핫·아이스 동일)를 기존 2,800원의 절반 가격인 1,4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반값커피는 양 총장이 직접 지원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장은성 기자

‘열정과 패기! 꿈을 향한 도전, 전북교육’

서거석 교육감, 국립군산대서 특강… “전북의 성장 도모 위해서는 인재 반드시 필요”

서거석 교육감이 1일 국립군산대학교 제1학생회관 고촌콘홀에서 ‘열정과 패기! 꿈을 향한 도전, 전북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국립군산대 초청으로 대학생들 앞에 선 서 교육감은 ‘열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자신의 교육 철학인 교육입도(敎育入道)를 언급하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재가 필요하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전북의 청사진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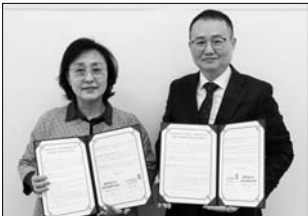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교육정책, 지역교육, 교육자로서의 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거석 교육감(사진 오른쪽)이 1일 국립군산대학교 제1학생회관 고촌콘홀에서 ‘열정과 패기! 꿈을 향한 도전, 전북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봄의 계절과 어울리는 푸릇푸릇한 청춘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모든 학생이 열정을 불태워 꿈과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전북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센터장 대행 김옥영)와 손을 맞잡았다.

1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날 31일 양 기관은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이에 전북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민주시민·인성교육, 평화공존교육, 환경교육 등 분야별 전문강사 위촉식이 열렸다.

민주시민·환경교육 전문 강사단 위촉

전북교육청, 분야별 강사 143명에 위촉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민주시민교육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단을 꾸렸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본청 강당에서 위촉식을 열어 민주시민·인성교육 80명, 평화공존교육 13명, 환경교육 50명 등 분야별 강사 14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환경, 생태, 문화감수성 등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학교교육과정에 질 높은 외부

강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 있는 외부 강사단을 꾸렸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원)장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학교(원)장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조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원 방법을 명확히 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사례 및 예방수칙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 △역학조사의 이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흥열 감사관이 공직자 청렴교육을 통해 학교급식의 청렴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현관 앞에서 커피차를 운영, 텀블러를 지참한 직원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다.

“즐거운 ESG 실천의 시작”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커피차 운영

텀블러 지참 직원에 무료로 음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ESG(환경·사회·윤리경영) 커피차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ESG 실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현관 앞에서 커피차를 운영, 텀블러를 지참한 직원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다.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과

장급 이상 간부들이 동참해 1회용품 줄이기와 ESG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4월 한달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위한 ‘텀블러 인증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청 내부부터 ESG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ESG 가치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尹 탄핵심판, 학교 민주시민 교육 기회로”

전북교총 “민주주의·법치주의 교육의 소중한 계기”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 여건에 따라 강당에서 전교생이 함께 시청하거나 각 학년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의 헌법적 의미, 탄핵심판 절차, ‘인용’, ‘기각’, ‘각하’ 등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시청 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발언 기회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탄핵심판은 법 위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실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조례 개정에 유치원 포함 환영”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유치원을 포함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 약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조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원 방법을 명확히 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법예고 당시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했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조차 단절유치원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8일까지 학부모 참여 공모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만들기(천연비누, 공예 한지 등) △역사 유적지 및 박물관 탐방 △교육(기후환경, 미래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환경개선(학교 담장 및 계단 수선, 학교 숲 가꾸기 등) △문화(시집 발간, 문화기행 등)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8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공모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jbe.go.kr/gongm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원·학생 참여 수준, 학교 참여 활동계획, 예산 집행계획,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 정도 등을 심사해 100여 개의 사업을 선정, 교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